

남원시, 어린이 야간 진료 걱정 끝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개소

남원의료원 평일 밤 11시까지

분만부터 통합 의료 시스템 완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

남원지역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설치사업이 추진됐던 ‘달빛어린이병원’이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과 박희승 국회의원, 지역 시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전북자치도, 유과기 관장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수탁기관인 남원의료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행사는 시립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과 헌관 전수식, 테일 커팅 등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병원 개소가 아닌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새 전환점을 알리는 상징적 자리가 됐다.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에 따라 남원에는 분만·소아진료·산후조리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완성했다.

남원시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오후 6~11시 야간에 운영되는 소아진료기관으로 아이가 아픈 늦은 시간에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북 도내 동부권 및 지리산권 지자체에 최근 수년간 지역 소아청소년과의원 폐업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남원’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사업이었다.



지난 5일 남원의료원에서 열린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식, 최경식(왼쪽) 시장과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이 헌관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또 오는 10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시기에 맞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추가 확보를 통해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진료하는 전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필수요료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와 연계해 남원 백제약국을 신규 공공신약국으로 지정해 야간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원스톱 어린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했다.

남원시는 분만·소아진료·산후조리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완성했다.

개소식 자리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한밤 중에도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며 “남원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24시간 소아진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역사에 큰 이정표가 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는 분만·소아진료·산후조리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보건의료 시스템을 완성했다. 개소식 자리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한밤 중에도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며 “남원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24시간 소아진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역사에 큰 이정표가 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전북도민체전 성공 개최 ‘카운트다운’

9월 12일부터 3일간 개최

시설 정비·행사 준비 만전

고창군이 9월12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의 개막 100일을 앞두고 카운터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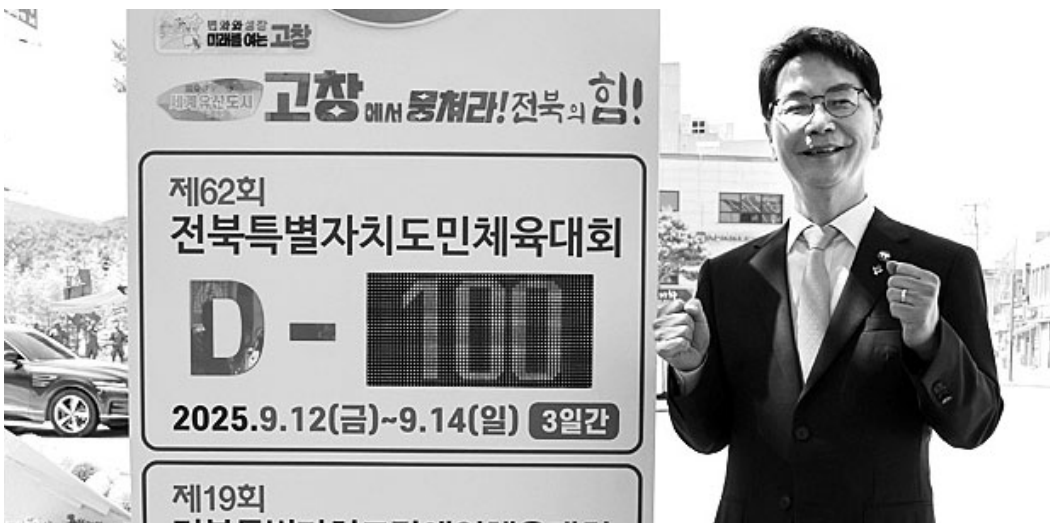
고창군은 최근 고창군청 앞 멀구슬나무 아래에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민 양대체전’을 알리는 카운터기를 설치했다.

군은 양대체전 카운터기를 설치, 개막일까지 남은 일수를 군민과 공유하며 체전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는 9월12일~14일,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는 9월26일~28일까지 고창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2만여명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참여해 다양한 종목에서 열린 경쟁을 펼치며 도민 화합을 이끌 예정이다.

군은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문채라 전북의 힘’, ‘행복도시 고창에서 감동 가득 희망체전’이란 슬로



심덕섭 고창군수가 고창군청 멀구슬나무 아래에 설치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카운터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건을 정해 성공적인 체전 개최로 도민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체육시설 정비, 자원봉사자 교육, 문화행사 준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자긍심을 담아 준비

중인 이번 전북자치도민 양대체전이 도민 모두 하나되는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남은 100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군민이 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장마철 앞 재해취약지역 점검

공사 현장 안전관리·배수시설 가동 상황·산사태 위험 등

남원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기상청의 올여름 집중호우 증가 예보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 재난안전 관계부서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배수시설 가동 상황, 산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대상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가 큰 급경사지 지역 ▲노후화된 재해위험 저수지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인 주요 하천 정비사업 구간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등으로,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현장 점검에서는 현장의 주된 의견을 청취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중장기 개선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공사 관계자들에게는 철저한 공정 관리와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완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해 24시간 재난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재난은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다”며 “조금의 위험 요소라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시민 정책 제안’ 10건 선정

농촌 일손부족 해결·첨단과학도시 제안·순환노선버스 추가 등

정읍시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의 수상작 10건을 발표했다.

정읍시는 지난 2월과 3월 시민을 대상으로 실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새롭게 시행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모해 총 309건의 다양한 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서 검토와 실무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행 가능성과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민 부문과 공무원 부문의 부문별로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지난 2일 열린 시상식을 통해 공개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시상장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시민 부문 우수상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말 직장인 참여 프로그램(시기동 오○

기) ▲정읍을 세계 첨단과학도시로 제안(상교동 이○협)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청소년·청년을 위한 시내 순환노선버스 추가(이평면 김○규) ▲상시적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체험장 운영 제안(내장상동 최○인)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국민여가캠핑장 주말 장터 운영(기술보급과 문○숙) ▲안전한 정읍 만들기(이평면 김○산) ▲정읍맛집에 관광정보 QR코드도 포함된 테이블세팅지 제공(민원지적과 최○룡)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야간이나 악천후에 대비한 발광자선 기술 도입(감염병관리과 조○) ▲단풍미인 소풍물 활용 못난이 농산물 판매(감곡면 조○희) ▲공공청사 내 자전거 타이어 자동공기주입기 설치 제안(보건위생과 문○옥)이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삼의사’ 정읍 독립운동가 백정기 91주기

윤봉길·이봉창 의사와 ‘삼의사’ ...상하이서 의거 중 체포돼 순국

대한민국 독립운동 삼의사 중 1인인 구파 백정기 의사의 91주기 추모식이 정읍에서 거행됐다.

정읍시는 지난 5일 영원면 백정기의사기념관에서 시와 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애국심을 기리는 추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과 박익 시의장, 장효정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수원백씨종친회 회원과 시민 등이 참석해 백 의사를 추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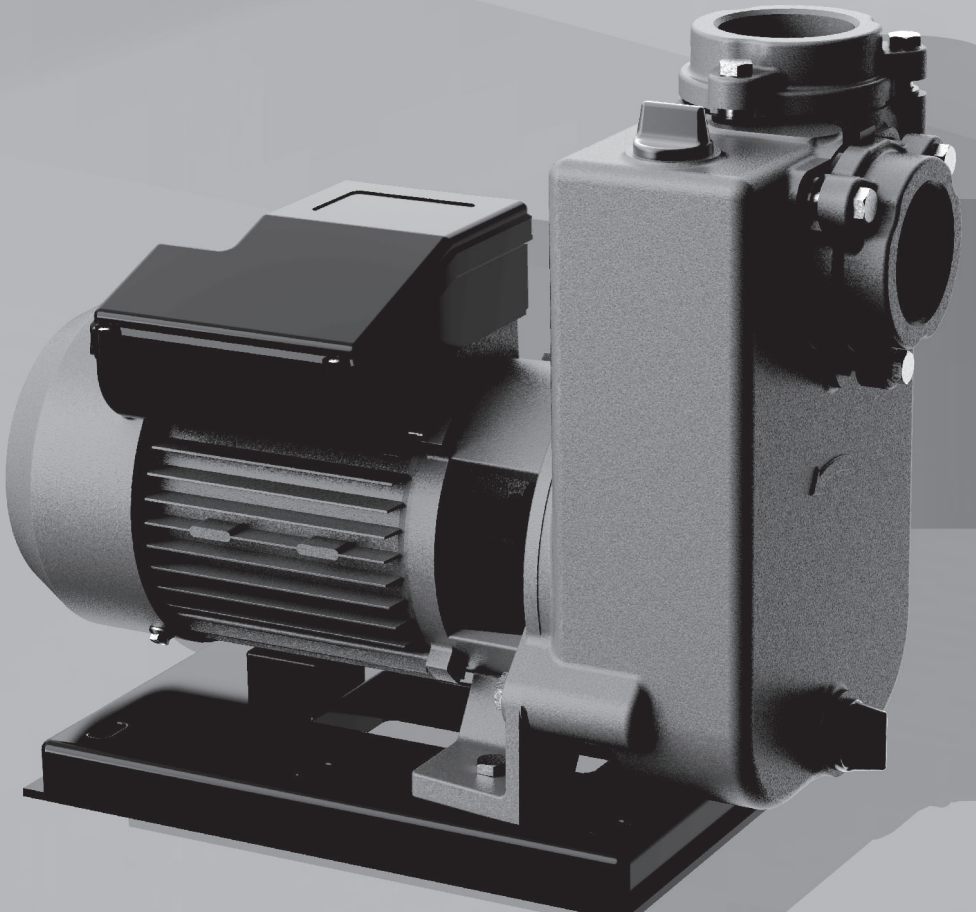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구파 백정기 의사는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함께 ‘대한민국 삼의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1933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주중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를 처단하기 위한 ‘육삼정 의거’를 계획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북

역 중 나가사키형무소에서 순국했다. 1946년 삼의사의 유해는 국민장을 통해 봉환됐고 현재는 서울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돼 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정읍시는 매년 추모식을 통해 백정기 의사의 뜻을 계승하고 그의 애국정신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의 고귀한 뜻과 의지를 깊이 새기며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순국선열과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보훈·선양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